

한국 근현대 생전예수재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

- 봉은사를 중심으로 -

이재수*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국 근현대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가치와 콘텐츠화
 - 1.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가치와 활용의 토대
 - 2. 생전예수재의 콘텐츠화 방향
- III.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체험형 콘텐츠화 전망
 - 1.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체험 가치의 구현
 - 2. 메타버스와 체험요소의 구현
 - 3. 봉은사 생전예수재 활용 전망
- IV. 맺음말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

© 『大覺思想』 제34집 (2020년 12월), pp.261-291.

한글요약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에 공덕과 수행을 미리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회하고 성찰하는 자행(自行) 의례이다.

본 논의는 근현대시기에 새롭게 정립된 생전예수제의 새로운 실천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가치를 확산을 위해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

생전예수제에서 지전을 사루고, 아미타불을 간절히 염하며 절하는 것을 극락으로 가는 티켓의 구매쯤으로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 보시와 독경과 수행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전통적인 예수제에 대해 백안시하는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거듭 태어났다. 보시와 수행의 사회적 실천의 과정을 모두 담아 실천적 신앙결사로 거듭나게 된 모범으로 주목받는다. 바로 불교의례가 지향하는 시대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는 뉴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나누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현실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죽음을 준비하여 보시와 추선을 통해 극락으로 함께 가는 수행의 축제의 장이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구조이다. 불교가 보여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신앙과 체험의 계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는 체험형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삶에서 수행과 공덕 쌓기를 통해 사회적 실천으로 향상일로(向上一路)를 걷게 한다.

본 논의에서 체험형 콘텐츠라는 도구로 장엄하고, 의미와 체험이라는 공감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길을 걷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주제어

불교문화, 불교의례, 봉은사 생전예수제, 불교문화콘텐츠, 체험경제, 체험형 콘텐츠, 메타버스.

I. 머리말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종교와 문화의 기본적인 소재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의 불확실성을 건너기 위해 살아생전에 공덕과 수행을 미리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 “생전의 업보를 소멸하겠다고 스스로를 참회하고 성찰”¹⁾하는 ‘생전예수제’이다. 여기에 불교가 제시하는 삶과 죽음의 가르침, 보시와 수행의 공덕과 회향의 다양한 가르침이 펼쳐져 왔다.

본 논의는 근현대시기에 새롭게 정립된 생전예수제의 새로운 실천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가치 확산을 위해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

칭명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는 상근기가 아니고서야 범부들은 법사스님의 가르침과 대중들과 예수제에 동참하여 보시하고 추천한 공덕을 지어야 한다. 지전을 사루고, 아미타불을 간절히 염하며 질하는 것을 극락가는 티켓의 구매점으로 편취하며, 보시와 독경과 수행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전통적인 예수제에 대해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지점에서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새로운 보시와 수행의 사회적 실천의 과정을 모두 담아 실천적 신앙결사로 거듭나게 된 모범으로 주목받는다. 바로 불교의례가 지향하는 시대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는 뉴미디어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송하며 자신의 삶과 의견을 즐기면서 나누고 있다.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현실을 가다듬고,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죽음을 준비하여 보시와 추천을 통해 극락으로 함께 가는 수행의 축제의 장이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구조이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불교의례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신앙과 체험의 계기를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체험형 콘텐츠라고 본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생전에 수행과 공덕 쌓기를 통해 사회적 실천으로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향상일로를 걷게 한다. 이러한 의례적 구조와 특징을 체험형 콘텐츠로 장엄하고, 의미와 체험이라는 공감 요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알리고 그 가치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

1) 홍윤식, 「생전예수제의 전통과 구성」, 『생전예수제 연구』, (사)생전예수제보존회 불교신행문화연구소 편, 민속원, 2017, p.12.

련하여 함께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II. 한국 근현대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가치와 콘텐츠

1.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가치와 활용의 토대

생전예수재는 살아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 공덕을 닦는 ‘자행(自行)’의례이며, 속(俗)에서 성(聖)을 향해 나아가는 스님[乘法沙門]의 인도와 집전으로 재자가 참여한다. 여기에 영가를 위해 불보살의 위신력을 빌기도 한다. “의례 주체와 의례 대상이 동일한”, “자행의 천도재”²⁾이다.

죽음에 임했을 때 시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미리 공양을 올려 선업을 닦지만, 선업을 행하는 보시의 실천이 중심이다. 16세기 초에 ‘시왕재’, ‘소변재’라고 하여 시왕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1529)에서 시왕을 찬탄하며 예경하며 공양하고 『제반문』(1576)의 공양대상도 시왕이었다. 이후 윤달에 생전예수재가 상례화 되었다.³⁾

19세기 중반(현종6년, 1840)에 우리 민족의 전통 풍속을 기록하기 위해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윤월조(閏月條)」에 생전예수재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있다.

세속의 관념에는 윤달에 ... (중략) ... 경기도 광주(廣州)에 있는 봉은사(奉恩寺) 현재 위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매번 윤달을 만날 때마다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부처 앞에 돈을 놓는다. ... 중략 ... 서울과 지방의 대부분의 절에서 이런 풍속을 볼 수 있다.⁴⁾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역사적으로 예수재와 수륙재를 연이어 동시에 설행하였

2) 구미래,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정토학연구』 23, 한국정토학회, 2015, p.51.

3)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정토학연구』 23, 한국정토학회, 2015, pp.29-38.

4)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7, p.267.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84년 윤10월을 맞이하여 봉은사의 「예수재 및 수록재 안내」라는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 입재 기간은 윤10월 9일인 12월 1일이며, 7일간에 걸쳐서 예수재와 수록재를 봉행한다고 하였다.⁵⁾ 선 예수재 후 수록재의 사례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⁶⁾ 『기암집』 권2의 「유점사천왕 점안낙성소」를 보자.

이 때문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여러 시주를 모집하고 발에 못이 박히고 손이 부르트도록 주관하는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천왕상을 빚고 나서 향과 꽃을 준비한 다음에 금강산의 가장 수승한 도량에 오래토록 참구한 늙은 운수납자[雲衲]들을 초청하여 먼저 예수재를 열고 이어 수록재를 개최하고는, 명부사자에 기도하여 앞길에 평탄해지기를 기원하고 훌륭한 공양거리를 베풀어 원수거나 친하거나 널리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밝고 밝게 살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⁷⁾

이러한 생전예수재의 전통은 지속되어 왔으며, 2016년부터 윤달이 들지 않는 해에도 매년 생전예수재를 봉행해왔다.

2017년 봉은사, 대성사, 보타사, 조계사, 불교여산작법학교를 비롯한 5개 서울시 전통사찰은 생전예수재의 원형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사)생전예수재보존회’를 발족하였다. 특히 수행점검 책자를 통해 49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삶을 살아 보며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생전예수재는 서울 지역의 다양한 사찰에서 (사)생전예수재보존회의 결성 이전에도 꾸준히 설행하면서 전승되어 왔다. 특히 조계사,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 도심의 전통사찰들은 생전예수재를 최소한 윤달이 있는 해에는 봉행하여 왔다. 1960년에서 2014년까지 21번의 윤달이 있었는데 매년 생전예수재를 봉행하였다. 이는 한국 불교의 전통의 계승을 넘어 생전예수재가 얼마만큼 대중적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의례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전예수재는 전통의

5) 「예수재 및 수록재 안내」, 『불교신문』, 1990.11.14, 6면.

6)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전개」, 『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재보존회 불교신행문화연구소 편, 민속원, 2017, p.56.

7) 法堅, 「楡岾寺天王點眼落成疏二」, 『奇巖集』 권2(韓佛全 8, 171b), “是以心竭力殫, 募廣緣於諸檀, 足抵手胼, 合幾賞於主幹. 既辨塑擔, 且備香花, 就金剛最勝之場, 集雲衲久奈之老, 始以預修之會, 繼以水陸之齋, 頌禱冥司, 冀前途之平坦, 修設勝采, 普饒益於冤親, 了了照詳.”

계승은 물론 시대적 요청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였다는데서 살아있는 의례라고 보아야 한다. 1993년 5월 봉은사에서 진행된 예수제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시를 통해 금생의 죄를 소멸하고 바른 신행 운동이며, 봉은사가 예수제를 49일 신행 운동으로 전환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⁸⁾

그동안 생전예수제에 대한 비판이 불교계 안팎으로 일고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3월 24일부터 49일간 진행된 생전예수제를 신행 운동으로 전환하여 예수제의 의미를 현대에 맞게 계승하여 새로운 공동체 신앙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계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예수제를 49일간의 신행 운동으로 확립하여, 사회적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정립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수제 모델을 만들었다. 2004년 4월의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풍경을 보자.

생전예수제를 수행결과로 승화시키고 실천을 위한 청규를 마련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던 강남 봉은사의 '참살림 수행결사'가 4월 18일 회향한다. 1일 108배 절하기를 회향하는 의미에서 1080배 절하기를 진행하며, 헌혈 화장서약 장기기증, 사후시신기증 등의 각종 서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49일간 진행된 이번 신행결사에는 하루 평균 200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⁹⁾

1993년 이후 예수제에 담긴 기복적 성격에 대한 불교계의 자성적 성찰과 사회적 비판을 직시하고 봉은사는 수행과 보시를 결합한 새로운 예수제를 통한 신행의 모범적 진형을 제시하였다.¹⁰⁾

기존의 예수제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사후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신앙의 실천은 전통을 계승으로 정립하고, 생전예수제를 통해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친다.¹¹⁾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에 맞는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고, 죄를 소멸시키는 실천불교를 정립하였다. 즉 불교의례를 통해 신앙과 사회

8) 「봉은사 예수제 의미 신행운동으로 새롭게 드러내」, 『불교신문』, 1993.5.26, 6면.

9) 「봉은사, '참살림 수행결사' 회향」, 『불교신문』(2004.4.9.), 14면.

10) 성정환,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위상과 의의」, 『정토학연구』 30, 한국정토학회, 2018, p.247.

11) RUTANA Dominik, 「한국 죽음준비 의례에 대한 검토 :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중심으로」,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1-1, 중동유럽한국학회, 2020, pp.210-211.

적 실천이 하나 되어 타인을 위한 보시를 통한 사회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한다는 새로운 신행 문화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지향점이 있다. 이처럼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불교의례의 전통의 계승과 함께 새로운 불교 신앙과 의례의 정신을 구현해 왔다고 본다.

2019년은 개산 1225주년을 기념한 불교문화 축제가 열렸다. 9월 29일 역대조사 다례제를 시작으로 가을 음악회, 그림그리기 대회, 정대불사, 10월 6일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10월 7일에 수록대제를 끝으로 회향하였다.¹²⁾ 서울시는 2019년 9월 27일 (사)생전예수제보존회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제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 오해는 유래없는 코로나의 유행에도 생전예수제가 봉행되었다.

봉은사는 사라져가는 불교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2009년부터 생전예수제를 봉행해 왔다. 2017년 6월 (사)생전예수제보존회를 설립, 10월 『생전예수제 연구』를 발간하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힘써왔다. 3차례의 생전예수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생전예수제 의례집 『예수시왕생칠재의찬문』을 3차례에 걸쳐 보완,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전통의례 연구를 진행하며 불교의례의 가치를 두루 알리는데 앞장섰다.¹³⁾

본 연구의 출발점은 봉은사 생전예수제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여 죽음 교육의 장임을 확인한다. 또한 오늘날 불교의례의 핵심적인 토대를 보존하고, 이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가치를 확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콘텐츠화 방향

논자는 봉은사 생전예수제에 담긴 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개발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무형의 의례를 대중들의 눈앞에 펼쳐내고 알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봉은사, 개산 1225주년 불교문화축제 행사 풍성」, 『불교신문』, 2019.9.29.

13) 임은호, 「봉은사 생전예수제보존회,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법보신문』, 2019.9.30.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33\(2020.10.15. 검색\)](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33(2020.10.15. 검색))

첫째,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내용과 역사를 담은 기록 유산의 정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생전예수재는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을 사상적인 바탕으로 삼고,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등의 경전에서 그 유래와 신앙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장경』은 망자를 위해서 산자가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의 1/7은 망자에게 전해진다고 하였고, 『수생경』은 12가지의 띠를 따라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누구나 생명줄을 이어준 돈 수생전(壽生錢)을 명부(冥府)에서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수천왕통의』에 북인도 유사국 병사왕이 25년 동안 49번에 걸쳐 예수시왕생칠재(豫修十王生七齋)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왕의 관리와 그에 따른 권속들의 이름을 몰라서 명사들의 고통을 위로해주지 못하였다. 저승을 다녀온 후 예수시왕생칠재의 35편을 올바르게 봉행하여 미륵대성을 친견하고 수다원(須陀洹)과를 증득하여 성인이 된 이야기가 있다. 또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에 판각된 예수시왕생칠경판 3종을 통해 예수시왕사상은 고려시대부터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전예수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기록의 정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계승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¹⁴⁾ 아울러 봉은사 생전예수재 의례 『예수시왕생칠재의찬문』에 담긴 역사성과 의례적 구조를 담아 디지털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과 활용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는 생전예수재 관련 원천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콘텐츠 제작의 기반을 이루는 스토리를 발굴한다. 즉 역사적으로 생전예수재가 설행되어진 과정과 관련한 역사 자료를 사건, 시간, 장소, 인물 등으로 구분하고 정리하여 스토리를 정리한다. 이는 한상길(2015)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이 중심이 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행 되었으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예수재의 설행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스토리텔링으로 담겨야 한다. 예수재의 구성과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알기 쉽게 풀어내야 한다. 즉 『지장경』, 『예수시왕생칠경』, 『수생경』 등의 관련 경전에 등장하는 불보살, 시왕, 각각의 판관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재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4)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연구」,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pp.182-211.

나아가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체험과 신앙담을 담은 신도들의 새로운 스토리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실행과 관련한 준비 과정, 체험담, 신앙사례 등과 관련 구술 증언을 담아서 정리해야 한다. 스토리 발굴의 순서는 신문, 잡지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자료의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일차로 한다.

셋째,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지니고 있는 의례적 특징에 주목하여 복원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봉은사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문』에 토대를 둔 예수재의 실행을 기록화하는 작업의 과정을 토대로 콘텐츠화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원천자료를 마련하고 콘텐츠로 개발하는데 가치사슬을¹⁵⁾ 따르는데, 여기에 3단계로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첫째,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디지털화하여 원천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보존 및 관리 단계’를 통해 예수재의 실행의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를 각각의 예수재의 순서 및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구분하여 정보자원을 재생산한다.

셋째, ‘활용 단계’에서는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향유 하는데 목적을 두는 방향으로 확장한다. 이때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생산 및 체험 도구를 이용한 활용을 염두에 둔 버전의 원본과 복사본의 생산물을 통칭해 디지털 문화유산¹⁶⁾이라 한다. 그런데 디지털화는 단순히 사진 촬영과 녹음 등과 같은 복제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나아가 활용을 목표로 분류 및 조합은 물론 재창조, 변주를 통해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로 재창조되는 디지털 문화유산도 가치사슬로 이어진다. 이러한 디지털 접근은¹⁷⁾ 디지털 재현이나 웹사이트로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반드시 콘텐츠를 목적하여 예수재가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기획하고, 기획 단계에서 복합적인 활용도를 고려해 다양한 포맷으로 작업을 해야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산할 수 있다. 과거의 인터넷의 웹 페이지 기반에서 스마트 미디어의 소셜네트워크 기반으로 복합적인

15) 이준근 외,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17.

16) The Collections Trust, “Mapp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heritage sector”, London: Heritage Lottery Fund, 2010, p.3.

17)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3, p.46.

<표 1> 디지털시대 문화유산의 가치사슬과 봉은사 생전예수재 콘텐츠화

구분	<생산>	<보존/관리>	<활용>
내용	조사 연구 발굴	복원 관리 보존	활용 분석
기술	디지털 기록 기술	재현/재생산기술	체험 관련 기술
지향점	디지털화 ⇨ 정보자원화 ⇨ 콘텐츠화 ⇨ 융복합화		
콘텐츠	봉은사 생전예수재 원천자료 아카이브	봉은사 생전예수재 복원 콘텐츠	봉은사 생전예수재 체험/교육/파생 콘텐츠

과생콘텐츠로 확장되어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림 1> 봉은사 생전예수재(출처: ©불교신문)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콘텐츠화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획의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보존회와 같은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불교의례와 신앙의 구조를 이해하고 연구해온 불교학자, 역사학자, 예수재의 설단과 설행 등에 담긴 문화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재 설행의 주체인 예수재보존회가 참여하여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조선시대의 원형을 근현대에 새롭게 정립한 만큼 불교사에 정통한 전문가가 기획 단계에서 검증하고 콘텐츠의

기본을 정해야 한다. 단순한 디지털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영상 제작 수준으로 콘텐츠화를 바라본다면,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문화콘텐츠 개발은 먼저 예수재의 철학적 기반에 따른 불교의례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예수재를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관련 경전, 역사적 기록, 의례문, 범패, 불교음악 등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잘 반영해야 한다. 예수재의 구성 요소인 불보살, 시왕, 고사관관, 설단, 고사단, 마구단, 장엄, 번, 의복, 지물, 지화, 금은전, 합합소, 공양물 등에 대한 콘텐츠화는 예수재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여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봉은사 예수재 콘텐츠화의 기본이 되는 원천자료의 발굴과 활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불교의례에 담긴 복합적 정보를 담고 각각의 요소들을 망라하는 생전예수재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출발은 생전예수재의 의례적인 특징을 담은 보편성과 봉은사 생전예수재에서 부각되는 특수성을 함께 담아야 한다. 체계적인 조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굴과 꼼꼼한 기록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봉은사 생전예수재와 관련된 1차 원전 자료를 총망라한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와 다양한 활용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어서 2차 연구자료의 구축,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3차 자료의 확산 텍스트 구축까지 이어져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관련 텍스트 구축과 사진, 음성, 음향 및 영상의 결과물은 전문가와 예수재보존회의 철저한 자문에 기초해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 작업을 통해 아카이빙을 해야 비로소 콘텐츠 개발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셋째,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신앙적 의미와 맥락이 드러나 그 특징을 잘 알고 확산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한다. 앞 단계의 아카이빙의 토대에서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역사적 사실과 의례의 구조를 토대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한다. 불교의례의 구조와 성격을 담아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가치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지장보살본원경』, 『예수시왕생칠경』 등의 경전과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예수시왕생칠제의찬문』 등과 같은 의례문이 기본이 된다. 예수재의 설행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다양한 설행의 요소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야 한다. 예수재 설행의 단계에 맞는 스토리라인을 도출해서 수행하여 활용 콘텐츠 제작에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준비, 설행, 회향 등의 기본 과정에서 플랫폼 별 확장성을 고려해 반드시 다양한 포맷으로 제작해야 한다. 즉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은 물론 애니메이션, 모션캡처, 3D그래픽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교의례 전문가들의 논의와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들과의 협업과 정리가 필수적이다.

III.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체험형 콘텐츠화 전망

1.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체험 가치의 구현¹⁸⁾

문화산업에서는 문화를 매개하는 정서적 체험을 나누거나 프로그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파인(Pine)과 길모어(Gilmore)는 체험경제를 통해 소비자가 생산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체험으로 정의하였다. 체험의 범주를 ‘고객 참여’와 ‘연관성’을 중심적 틀을 가지고 4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체험은 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체험 등 4가지의 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오락적 체험이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는데, 대부분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주요한 내용으로 감각적 쾌락을 이끌어내며, 수동적인 참여로 흡수해낸다. 우리의 감각기관 즉 오근(五根)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산사음악회를 비롯하여 연주회, 뮤지컬 등 관람형 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즐거운 쾌락과 오감의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

교육적 체험이란 개인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몰입을 유도한다. 이때 우선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확충하는 효과를 증대시킨다. 사찰에서 신형 활동을 넘어서 불교대학이나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나 참여를 통해 불교적 교리나 일반적인 교양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을 제

18) 이재수, 「점찰법회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전망」, 『정토학연구』 32, 한국정토학회, 2019, pp.91-94 내용을 재정리하여 논의의 기반을 삼았다.

공한다. 부차적으로 교우관계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친목 도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일탈적 체험이란 능동적으로 참여를 통해 몰입하는 체험인데, 대표적으로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 새롭게 창조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하게 한다. 템플스테이처럼 일상을 벗어난 산사에서의 체험은 일상을 벗어난 수행자의 삶과 경험을 제공하여 세속을 벗어나 마음의 평온함을 제공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심미적 체험이란 수동적인 참여를 통해 몰입의 영역으로 이끌어 들이는데,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공간의 문화적 요소의 투입으로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에서 미적 감각을 체험하도록 한다. 사찰이 지니는 자연, 수행환경과 불교 문화유산의 미학적 분위기들을 체험한다.

최근 문화관광축제에서 방문객의 체험 만족도와 행동 의도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¹⁹⁾ 체험경제의 영역에서 교육적 > 오락적 > 심미적 > 일탈적 체험의 순서로 그 중요도가 부각되었다.

생전예수제에 담긴 다양한 가치를 확산해내기 위해 이와 같은 체험 요소를 잘 살피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오락적 체험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면 불교의례에서 오락적 체험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예수제에 참여한 신도들이 의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후의 극락왕생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가마타기나 반야용선 타기, 화청놀이를 통해 보여준다. 주로 영남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도들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다.²⁰⁾

가마나 용선을 타고서 탑돌이를 하거나 법당을 도는 것은 아미타 정토신앙을 기반으로 한 한국 민중불교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²¹⁾

19) 용석홍·박철호·한수정, 「문화관광축제의 체험경제요소, 체험만족, 행동의도간의 관계 연구: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2, 한국관광레저학회, 2019, pp.161-169.

20) 광성영(승법), 『생전예수제의 현장론적 이해와 의례의 축제성』,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146.

21) 「생전예수제에 내제된 축제적 성격과 대중문화로의 활용방안(승범스님,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강사)」, 『한국불교신문』, 2017.11.28.

[http://www.kbulgy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80\(2020.10.15. 검색\)](http://www.kbulgy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80(2020.10.15. 검색))



<그림 2> 가마(용선)놀이[출처: 『한국불교신문』(2017.11.28.)]

‘반야용선(般若龍船)’은 오탁악세를 넘어 피안의 극락정도에 갈 때 타는 배이다. 반야용선이 극락전의 벽화로 그려진 것은 망자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인도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극락정도에 왕생하였음을 바라는 것이다. 이는 사부대중에게 즐거움을 주고 집단적인 경험을 이끌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준다. 이러한 놀이의 체험은 예수재의 근엄함과 긴장을 오락적 체험으로 풀어주는 기회를 준다. 또한 오락적 체험은 개인의 경우에서 집단적 경험으로 갈수록 더욱 그 체험의 강도가 강해진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에서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반야용선 타기를 제안한다. 나아가 화청을 통해 대중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와 발원을 음악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게 제시할 수 있다.

교육적 체험은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재자는 예수재의 절차를 통해 심리적 과정화(processing)가 이루어진다.²²⁾ 1단계는 재자 자신의 죽음의 상징 및 범주와의 접촉 국면, 2단계는 범주 등 의식의 시행자와의 관계 형성 국면, 3단계는 예수재를 실행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에 심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국면, 4단계는 예수재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국면, 5단계는 예수재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지 변화를 촉진 시키는 국면, 6단계는 예수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죽음을 수용하거나 및 그 인식이 변화하는 국면, 7단계 예수재 참여의 결과를 평가하고 종합하는 국면 등이다.²³⁾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죽음 상황을 직면하고,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22) 이범수, 「불교의 예수재와 죽음교육」, 『정토학연구』 11, 한국정토학회, 2008, p.372.

23) 이범수, 「현대 한국사회의 생사문화와 불교적 죽음교육 방안」, 『선문화연구』 20,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6, pp.294-295.

성찰하며, 죽음 이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인식 변화를 탐색한다. 예수재를 통한 죽음 교육에 접근한다. 『수생경』에서 『금강경』이나 『수생경』을 49일 동안 독송하는 것이거나,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에서처럼 21일 동안 예수재를 봉행하는 등의 내용과 과정을 응용해 전통 효 사상과 가족문화의 개념에 충실한 『지장보살본원경』 등의 불경을 독송하게 할 수 있다. 예수재와 관련된 내용을 법사를 통해 교육받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은 삶의 또 다른 과정이며, 죽음의 고통은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인 참회와 염불수행, 보시와 공양 등 선업 쌓기 등을 수행하고, 정도로 이끄는 예수재에 참여하여 함께 하는 과정을 겪는다. 예수재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세계관을 확장 시키는 교육과 신행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일탈적 체험은 일상생활 즉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청정한 사찰에서 법회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량 청정의 의식과 장엄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체험을 하게 된다. 생전예수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일탈적인 체험이며, 지장신앙, 시왕신앙의 경험에 몰입하여 명계의 심판, 지옥과 극락을 바라보는 체험을 이끌어 낸다.



상단(증명단)



중단(명부시왕단)

<그림 3>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심미적 체험 요소

심미적 체험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회 공간의 장엄 요소와 예수재의 실행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체험을 말한다. 즉 상단, 중단, 하단에 장엄된 불보살상, 고사단, 마구단, 각종 번과 지화장엄, 향과 꽃, 촛불 등의 설단

장엄에서의 불교적 정서와 예수재 설행에서의 종교적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여 심미적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다.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의 4가지 요소는 소비자들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²⁴⁾ 체험을 상품화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테마를 통해 체험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텔링을 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서 경험에 몰입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둘째는 긍정적인 단서와 인상의 조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제공할 인상을 미리 디자인하고 그 단서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은 물론 규모나 관련 기술과 내부에 담기는 진정성 등을 정리해야 한다. 셋째 부정적인 단서를 제거하여 체험의 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넷째 기념품을 통해 해당 체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수단으로 삼아 체험의 효용을 지속하도록 한다. 다섯째 오감을 통한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5가지의 체험 디자인의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²⁵⁾ 체험 디자인의 원칙으로 체험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구성 요소와 관련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에서 예수재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생전예수재의 과정과 효능, 명계의 시왕과 고사 및 지옥의 구조와 극락세계의 차별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효능과 삶의 긍정적인 단서를 잘 정리하여 제시한다. 죽음 준비교육 과정의 대입과 정토왕생, 예수재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 등을 정리해야 한다.

셋째,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명계와 지옥 및 정토의 세상에 대한 입장은 바로 우리들의 수행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선악업에 따른 우리의 불행과 행복 즉 길흉화복이란 것은 절대적이지 아니라 조건 지워진 것 [緣起]이라는 불교적 성찰이 필요하다. 생사의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이고 고히에 빠져있다는 부정적이고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약한 생각을 떨쳐야 한다. 생전예수재에서 수생전의 봉납, 『금강경』 독경을 통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시와 공양으로 사회적인 회향을 통해 현실에서 복을 받을 수 있

24) 송학준, 「2012 여수엑스포 방문객의 체험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2-6,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3, 참고.

25) 김용훈, 「체험경제시대의 템플스테이의 관광만족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6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p.332.

음을 확인한다.

넷째,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정해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시왕, 반야용선, 금은전, 함합소, 지화 등의 예수제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참여와 체험을 증가시킨다.

다섯째, 봉은사 생전예수제에서 지각 요소를 결합하여²⁶⁾ 오감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재미, 몰입, 놀라움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한 지옥의 세계와 극락세계의 구현, 시왕과 고사 등의 등장인물의 역할과 기능의 의미를 담아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메타버스와 체험요소의 구현

현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 확산되어 이를 응용하여 역사문화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VR 콘텐츠들은 대부분 고대사 영역에서 대부분 제작되었다. 그러한 경향을 살펴보면, 체험콘텐츠의 수요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사료의 빈약함에서 오는 고증이 어려운 역사적 상황의 한계를 상상력에 의존해 복원해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²⁷⁾ 가장 성공적인 역사문화콘텐츠의 대명사로 꼽는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²⁸⁾의 경우를 보자. 장점은 우선 석굴암의 제작과정과 구조적 특성에 대해 관람객의 1차원적인 눈높이를 벗어나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도록 한다. 정작 가장 중요하게 꼽아야 할 석굴암의 조영 목적인 불교적 신앙 가치를 담아 체험하도록 하는 면이나 당시 신라인들이 석굴암에서 예불을 올리면서 느꼈을 본존불에 대한 경외감, 존경심과 환희 등은 체험 요소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²⁹⁾

체험형 콘텐츠는 문화유산의 복원 차원을 넘어 역사적인 상상력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6) 추승우, 「체험경제이론을 기초로 한 고객 체험품질 향상을 위한 체험마케팅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9-4, 한국관광레저학회, 2017, p.19.

27) 최희수, 「체험형 역사콘텐츠와 한국고대사-역사적 상상력의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4, 한국고대사학회, 2016, p.211.

28)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

<http://indigoent.com/projects/2015-seokguram-hmd-experience/>(2020.10.08. 검색)

29) 최희수, 위의 논문, p.212.

메타버스(metaverse)는 다차원의 우주라고 하는데,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라는 소설에서 유래하였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이 통용되고 있는 3차원 가상공간,³⁰⁾ 또는 생활할 수 있는 가상세계이다. 즉 실제와 같이 사회, 경제적 생활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공간을 말한다.³¹⁾ 메타버스의 세계에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그, 거울 세계, 가상세계 등이 있다.³²⁾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정보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2D 또는 3D로 구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투영하여 보여주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줄이면서 보다 높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³³⁾ 사용자가 스마트폰미디어와 같은 기기를 통해 봉은사를 살펴보면 대웅전에 대한 설명이나, 주변의 글귀를 설명하는 등의 사전에 정보를 입력하여 공간정보에 통합해서 물리적 현실의 영역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도구를 통하면 복합적인 정보와 체험이 가능하다.

라이프로그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저장하고 보여주는 기술이다. GPS 감지기가 부착된 스마트 위치를 통해 내가 달리는 동안 기록된 나의 활동 영역에 대한 정보와 생체정보의 변화를 담은 정보를 담아서 저장하거나 공유하여 활용한다.

거울 세계는 실제 현실 세계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반영하면서 보여주는 “정보적으로 확장된”³⁴⁾ 가상세계를 말한다. 구글어스와 같이 전 세계에서 제공된 위성사진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30)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2008 한국 HCI 학술대회』, 한국 HCI학회, 2008, p.1451.

31) 류철균 · 안진경, 「가상세계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게임산업저널』 2007년 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p.33.

32) John Smart · Jamais Cascio · Jerry Paffendorf, 「Metaverse Roadmap」, A Cross-Industry Public Foresight Project, 2007.
<http://www.metaverseroadmap.org/MetaverseRoadmapOverview.pdf>(2020.10.08. 검색)

33) 김한철 · 권오병 · 조미점 · 박희철 · 이석민 · 이정선, 「FDM을 활용한 차세대 u-Biz로서의 Meta-Biz 주요 유형 선정」,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 p.73.

34) John Smart · Jamais Cascio · Jerry Paffendorf, 위의 글, p.7.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축하여 경험하도록 한다.³⁵⁾ 이때 사용자를 대신하여 아바타를 등장시켜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디지털 데이터로 이룩된 세계이다.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실행하는 회상에 투영하여 관람객들이 과거의 봉은사 생전예수제 모습을 볼 수 있다. 『생전예수시왕생칠제의찬문』의 봉은사 생전예수제 설단을 보자.³⁶⁾



생전예수제를 위한 과불, 번, 보산개



생전예수제 무대 전경

<그림 5> 봉은사 생전예수제 설단

이러한 각 설단의 구조에 각각의 명칭에 따른 기능과 역할 및 유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는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이 현재 머리에 뒤집어써서 이용자의 눈앞에 영상을 비춰주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설단 구조의 각각의 영역에 QR코드를 통해서 사진에 제작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보여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교육적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이프로그는 생전예수제의 실행 과정을 체험하고 각 의례에 참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실행활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금강경』을 독송하고

35) 한혜원,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Vol.9 No.2,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08, pp.321-322.

36) 원명·인목·범안 편, 『生前預修十王生七齋儀纂文』, 생전예수제보존회, 2019, p.222.

지전인 금은전(金銀錢)을 바치는 과정을 따라서 기록한다.

또한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이라 하여 자신이 태어난 해에 따라 읽어야 할 경전과 지전의 양이 정해져 이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정미(丁未)생은 빚진 돈 91,000관, 읽어야 할 경전 29권을 제52고 조관 주(朱)씨에게 바쳐야 한다. 즉 49일 동안 수행과 예수재 참여 과정을 기록한다.

거울 세계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고려, 조선, 근대시대를 반영한 봉은사 생전 예수재, 예수재가 설행된 봉은사의 사역(寺域)은 물론 불사를 통해 변화되어온 가람의 배치를 투영해 타임랩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가상세계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설행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경험, 죽음 이후 7·7일 동안 시왕 및 심판들에게 심판을 받는 단계, 지옥의 갖가지 고통을 받는 세계와 차별상을 캐릭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유형과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체험적 요소의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메타버스 유형과 봉은사 생전예수재 체험요소

메타버스	봉은사 생전예수재	예시	체험요소
증강현실	예수재 설단 구조 각종 번기	설단의 구조 기능과 역할 및 유래의 정보 제공	부가적인 정보 제공, 교육적 체험
라이프로그	예수재 참여, 독경	예수재 참여 과정, 49일 수행과정	예수재 참여, 십이생상속
거울세계	시대상을 반영한 봉은사 생전예수재 설행	고려, 조선시대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설행	생전예수재 시대, 봉은사 공간 변화상
가상세계	시왕에게 심판, 지옥의 고통, 왕생극락	시왕에게 심판을 받음 지옥의 고통을 체험함 정토세계의 체험	역할체험, 캐릭터를 통한 체험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의 제작의 기본 원칙은 콘텐츠에 담기는 종교적인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객관화하는 것과 함께 예수재에 담긴 의례적 구조에 따른 각각의 체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불교학자, 역사학자, 의례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실행 공간에서 캐릭터를 통해 예수제의 구조와 명계의 시왕 심판 > 지옥의 세계와 지옥고의 체험, 극락 세계의 체험을 이끌어내는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한다.

지장보살상, 시왕 또는 시왕탱을 단순히 재현하여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그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조망된 생전예수제 신앙의 체계를 담아야³⁷⁾ 콘텐츠 개발의 기반을 구축을 마련한다. 죄업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을 모두 구해내야 하겠다는 본원을 세운 지장보살의 캐릭터적인 특성을 부각하거나 칠칠일 동안 심판을 내리는 시왕과 판관, 지옥과 정토는 물론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실행되는 공간적 특성을 담아 오감 만족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되어야 한다. 설단의 밝고 지옥의 어두운 조명, 극락의 다양한 기쁨과 지옥의 괴로움의 은유적인 표현, 지옥 옥졸의 무서움, 인로왕 관음보살을 향한 기쁨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음향과 상상력 등을 담아야 한다.

3. 봉은사 생전예수제 활용 전망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한다. 과거의 계승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³⁸⁾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문화재 활용을 포함한 2017~2021년 기본계획에서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를 핵심적인 전략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화, 역사문화자원 관광콘텐츠 육성 및 스마트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현, 나아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홍보강화 등을 단위과제로 제시하였다.³⁹⁾

문화유산의 활용 또한 유산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문화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의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나아가 교육적으로 보면 인

37) 한태식(보광), 「생전예수제 신앙 연구」, 『정토학연구』 22, 한국정토학회, 2014.

38) <문화재보호법>의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참고.

39) 컬처엔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7, pp.173-174.

문 정신 함양, 전통문화의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나아가 문화유산의 진정성, 상징적 의미, 창의성, 다양성 등의 접근으로 창조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⁴⁰⁾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유산이 가진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이용”⁴¹⁾하는 행위이다. 문화유산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새롭게 재창조하거나 변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⁴²⁾이다. 나아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

체험형 콘텐츠가 되기 위해 먼저 체험의 구조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시대상 반영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불교문화 가운데 시대상을 반영한 경우의 대명사로 꼽는 것이 감로도이다. 이때 3단의 구도를 잡고 중앙 상단에 우란분재의 공양을 올리는 스님들, 화려한 의식의 장면이 등장하고, 하단에 아귀를 주인공으로 삼아 아귀에게 공양하는 것으로 감로의 즐거움을 얻는다. 나아가 인로왕보살의 인도를 삼아 상단의 관음보살을 비롯한 불보살님들의 보살핌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정토로 왕생한다. 하단에서 지옥의 고통이 펼쳐지는 원인과 고통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 물론 여기에는 지옥문을 부수는 지장보살님, 지옥의 옥졸과 온갖 악행이 등장한다. 이때 시대상을 담는다.

근대의 일상이 담긴 흥천사 감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39년 문성과 병문의 감로도는 교복을 입고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전선을 점검하는 전기공과 전봇대가 세워진 근대거리의 풍경으로, 근대식 재판의 광경, 대장간에서 고달픈 노동에 시달리는 소년공, 치열한 해진과 전투기가 나는 전쟁터 등이 그려져 있다.⁴³⁾ 이는 과거 조선 후기에서 말을 타고 화살을 쏘던 전쟁터, 호랑이가 등장하던 것이 모던라이프가 드러나⁴⁴⁾ 다큐멘터리와 같이 고통스러운 삼악도를 현재

40) 임학순, 『문화비즈니스연구소 콜로키움 발표 자료집』 Vol.2018 No.1,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18, p.42.

41) 김창규,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2012, p.282.

42) 장호수 『(새로 고쳐 쓴)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 백산자료원, p.336.; 장호수 (2012), 『문화재보존·활용론』, 민속원, 2011, p.79.

43) [서동철 기자의 문화유산 이야기] 서울 흥천사 감로도왕도, 『서울신문』, 2016.3.11.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2016007>(2020.10.15. 검색)

44) 고병철, 「일제하 한국불교의 근대성 수용 방식」, 『한신인문학연구』 4, 한신인문학

로 옮겨 거울처럼 비춘다. 또한 근래에 조성된 장곡사 하대웅전의 감로왕도 또한 세월호 침몰,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영령들을 애도하는 모습들과 함께 광화문 촛불집회는 물론 5·18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다.⁴⁵⁾



<그림 6> 흥천사 감로왕도 부분



<그림 7> 장곡사 감로왕도 부분

중단에서 재의식으로 공양과 보시라는 적극적인 노력과 극락세계로 가려는 능동적인 수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근대불화에서 적극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모습은 불교문화의 흐름이었다고 본다. 이를 이어서 선악 인과의 차별상을 이미지로 옮길 때는 시대상을 반영한 배경과 사건으로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도량을 장엄하여 공양거리를 준비하는데, 갖가지 당기[幢]·번기[幡]·지화 등 갖가지 장엄에 필요한 공양거리가 망라된다. 전체 상차림에서 위계에 따라 공양거리를 준비해 진설하며, 이들을 엄격한 품질의 기준과 품질보증을 해서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 디지털화해야 한다. 급변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최신 매체와 포맷으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제에 기본적으로 많은 지물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금은진’과 ‘함합소’ 등과 같은 구성 요소를 통해 교육과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연구소, 2003, p.95.

45) 「광주와 세월호, 촛불시위까지 현대사의 사건들을 6개월 동안 그려 완성한 불화가 있다」, 『HUFFPOST』, 2017.3.30.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3/30/story_n_15703054.html(2020.10.15. 검색)

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에 담긴 ‘합합소’는 상단에 쌓아둔 금은전을 고사단에 옮겼다가, 예수재 이후 모든 장엄과 금은전을 소대로 옮겨 태워 보내는데, 합합소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태우고 한쪽만 보관한다. 즉 저승길의 통행증명서의 역할을 한다. 예수재의 ‘금은전’은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명부에서 빌려 인간계의 시작이 되고 다시 빛을 갠다 공덕의 창고를 채운다. 즉 창고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정성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빛’이므로 고마움에 대한 보답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빛 갠기라는 의미이다.⁴⁶⁾ 사람들이 무사히 극락왕생할 수 있는 도구로 전생에 저승에서 빌린 것으로 후생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매개체이자 전생의 빛이며 이 빛을 갠아야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⁴⁷⁾ 이와 같이 생전예수재의 주요한 요소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콘텐츠화하는 것은 생전예수재의 체험과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V. 맺음말

불교의례는 붓다의 가르침의 실천과 경험의 체득을 통해 수행공동체가 함께 붓다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라는 프리즘을 통해 불교 공동체는 여러 생명과 화해하고 다양하게 소통한다. 여기에서 신앙공동체가 역사적 사회적 소통의 과정에서 전승해온 종교문화적 표현양식 총체이다. 여기에 심미적, 의미적, 유희적 기능이 함께 담겨 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업보를 소멸하겠다고 스스로 참회와 성찰을 통해 미리 닦아서 극락으로 향하는 보시와 수행의 공덕을 쌓는 의례이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전통의 계승은 물론 시대적 요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불교의례를 통해 신앙과 사회적 실천이 하나 되어 타인을 위한 보시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새로운 신행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해왔다. 그 결과 2019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재 보유단체로 (사)생전예수재보존회가 지정되었다.

46) 강민석, 『불교의 죽음대비교육 : 수륙제와 생전예수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pp.125-126.

47) 홍태한, 「생전예수재 조전점안이운 의식의 민속적 의미」, 『民俗研究』 3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p.435.

봉은사 생전예수제에 담긴 가치를 확산하기 콘텐츠 개발의 기본 토대를 세우는데, 먼저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콘텐츠화 방향으로 예수제의 내용과 역사를 담은 기록유산의 정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둘째, 예수제 관련 원천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콘텐츠 제작의 기반이 되는 스토리를 발굴해야 하며, 셋째, 예수제가 지니고 있는 의례적 특징에 주목하여 복원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제 콘텐츠 개발에 단계적 방법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기획의 단계에서 전문가의 집단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둘째, 원천자료를 획득 하는 데는 활용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셋째, 스토리텔링을 통해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신앙적 의미와 맥락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예수제의 준비, 실행, 회향하는 전 과정에서 플랫폼 별 확장성을 고려해 다양한 포맷으로 준비해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Pine과 Gilmore가 제안한 체험의 네 가지 요소를 따라 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체험의 구조를 고려해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체험요소를 제안하였다.

봉은사 생전예수제에서 오락적 체험은 반야용선 타기, 화청놀이와 같은 회향 의식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제안하여 재미를 담은 체험을 이끌어내고, 교육적 체험은 예수제를 통한 죽음 교육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가르침과 불교적 세계관을 확장하게 한다. 일탈적 체험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청정도량에서 장엄을 통해 생전예수제에 몰입하도록 하며, 심미적 체험은 예수제 실행으로 법회 공간을 장엄하고 도량 전체에서 불교적 정서와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한다.

아울러 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첫째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구성 요소와 관련한 스토리텔링, 둘째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과 정토왕생으로 심리적 효능을 고려한 긍정적인 단서를 준비해야 하며, 셋째 죽음의 고통은 극복해 떨칠 수 있다는 것으로 부정적 단서를 제거하고, 넷째 생전예수제에 담긴 반야용선, 금은전, 함합소, 지화 등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며, 다섯째 지옥의 세계와 극락세계의 구현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세계의 구현과 시왕과 고사 등의 등장인물 등 구성 요소의 개발이 필요함을 밝혔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예수제의 의례적 구조를 이해하여 체험 요소가 담겨져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틀로 증강현실, 라이

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를 내용으로 하는 메타버스(metaverse)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선행 공간에서 신앙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체험형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신앙의 체험과 보시와 공덕의 사회적 실천을 통한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아울러 생전예수재가 산자와 죽은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이 함께 하는 열린 축제의 장이 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된다면, 누구나 쉽게 삶과 죽음의 본질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정도를 이룩하는 수행의 실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도왕생의 길을 밝히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사)생전예수재보존회, 『생전예수재의 연구』, 민속원, 2017.
-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김창규,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2012.
- 원명·인목·법안 편, 『生前預修十王生七齋儀纂文』, 생전예수재보존회, 2019.
- 장호수, 『(새로 고쳐 쓴)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 백산자료원, 2011.
- _____, 『문화재보존·활용론』, 민속원, 2012.
- The Collections Trust, “*Mapp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heritage sector*”, London: Heritage Lottery Fund, 2010.
- 이춘근 외,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 컬처엔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7.
-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3.
- 강민석, 『불교의 죽음대비교육 : 수륙재와 생전예수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곽성영(승범), 『생전예수재의 현장론적 이해와 의례의 축제성』,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John Smart·Jamais Cascio·Jerry Paffendorf, 『Metaverse Roadmap』, A Cross-Industry Public Foresight Project, 2007.
- RUTANA Dominik, 『한국 죽음준비 의례에 대한 검토 :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중심으로』,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1-1, 중동유럽한국학회, 2020.
- 고병철, 『일제하 한국 불교의 근대성 수용 방식』, 『한신인문학연구』 4, 한신대인문학 연구소, 2003.
- 구미래,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정토학연구』 23, 한국정토학회, 2015.
- 김용훈, 『체험경제시대의 템플스테이의 관광만족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6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 김한철·권오병·조미점·박희철·이석민·이정선, 『FDM을 활용한 차세대u-Biz로서의 Meta-Biz 주요 유형 선정』,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
- 류철균·안진경, 『가상세계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게임산업저널』 2007년 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2008 한국 HCI 학술대회』, 한국HCI

- 학회, 2008.
- 성청환,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위상과 의의」, 『정토학연구』 30, 한국정토학회, 2018.
- 송학준, 「2012 여수엑스포 방문객의 체험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2-6,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3.
- 용석홍·박철호·한수정, 「문화관광축제의 체험경제요소, 체험만족, 행동의도간의 관계 연구: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2, 한국관광레저학회, 2019.
- 이범수, 「불교의 예수제와 죽음교육」, 『정토학연구』 11, 한국정토학회, 2008.
- _____, 「현대 한국사회의 생사문화와 불교적 죽음교육 방안」, 『선문화연구』 20, 한국 불교선리연구원, 2016.
-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제의 특성 - 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 『정토학연구』 23, 한국정토학회, 2015.
- 이재수, 「점찰법회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전망」, 『정토학연구』 32, 한국정토학회, 2019.
- 임학순, 『문화비즈니스연구소 콜로키움 발표 자료집』 Vol.2018 No.1,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18.
- 최희수, 「체험형 역사콘텐츠와 한국고대사-역사적 상상력의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4, 한국고대사학회, 2016.
- 추승우, 「체험경제이론을 기초로 한 고객 체험품질 향상을 위한 체험마케팅 개발 방안 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9-4, 한국관광레저학회, 2017.
-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제 연구」,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_____, 「조선시대 생전예수제의 전개」, 『생전예수제 연구』, (사)생전예수제보존회 불교신행문화연구소 편, 민속원, 2017.
- 한대식(보광), 「생전예수제 신앙 연구」, 『정토학연구』 22, 한국정토학회, 2014.
- 한혜원,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Vol.9 No.2,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08.
- 홍윤식, 「생전예수제의 전통과 구성」, 『생전예수제 연구』, (사)생전예수제보존회 불교신행문화연구소 편, 민속원, 2017.
- 홍태한, 「생전예수제 조건점안이운 의식의 민속적 의미」, 『民俗研究』 3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 「[서동철 기자의 문화유산 이야기] 서울 흥천사 감로왕도」, 『서울신문』, 2016.3.11.
- 「광주와 세월호, 촛불시위까지 현대사의 사건들을 6개월 동안 그려 완성한 불화가 있다」, 『HUFFPOST』, 2017.3.30.
- 「봉은사 생전예수제보존회. 서울사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법보신문』, 2019.9.30.
- 「봉은사 예수제 의미 신행운동으로 새롭게 드러내」. 『불교신문』, 1993.5.26.

- 「봉은사. ‘참살림 수행결사’ 회향」, 『불교신문』, 2004.4.09.
- 「봉은사. 개산 1225주년 불교문화축제 행사 풍성」. 『불교신문』, 2019.9.29
- 「생전예수제에 내제된 축제적 성격과 대중문화로의 활용방안(승범스님.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강사)」. 『한국불교신문』, 2017.11.28.
- 「예수제 및 수륙제 안내」. 『불교신문』, 1990.11.14.
-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 <http://indigoent.com/projects/2015-seokguram-hmd-experience/>(2020.10.08. 검색)

Abstract

Measures for Spreading the Value of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Saengjeonyesujae – Focused on Bonggeunsa

Lee, Jae-soo

(Assistant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Saengjeonyesujae is a self-conducted ritual that repents and reflects on one's own self-repentance so that the merit and meditation can be cleaned up in advance and revived after death.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ssue of developing the value of Bonggeunsa Saengjeonyesujae, which is considered a new practical best practice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s an experience-based content to spread the value of Bonggeunsa Saengjeonyesujae, and to contribute to the use in various fields.

People of paradise tend to disregard the purchase of a ticket from praying with paper money and bowing earnestly to the Buddha of Amitabha at the Saengjeonyesujae.

Bonggeunsa Temple was born again in order to overcome the atmosphere of reviving the traditional Saengjeonyesujae, which is said to be able to return to paradise through giving alms, sutra chanting and practice.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example of being reborn as a practical association of faith, containing both the process of social practice of giving alms and meditation. It presented the perspective of the times that Buddhist rituals are aiming for.

Modern people are creating and sharing contents and sharing their opinions through new media, led by smart phones.

Bonggeunsa is the structure of Saengjeonyesujae during his lifetime as a place for a meditation festival that reflects on the reality of myself and prepares for death and goes to paradise through giving alms and perform memorial services. In the era of smart media, I think that the way to present the opportunity for

new faith and experience that Buddhism can provide is the experiential content.

In order to prepare for death, Bongeunsa's Saengjeonyesujae led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practice through the performance and the building of virtues in life.

In this discussion, we intend to contribute to providing an opportunity to introduce and experience Bongeunsa's s Saengjeonyesujae to more people through the majestic, experiential content tool and sympathy with meaning and experience.

Key words

Bongeunsa's Saengjeonyesujae, Buddhist Culture, Buddhist ritual, Buddhist Cultural Contents, Experiential Contents, Experiential Economy, Metabus